

# 신안~목포역~버스터미널 간 광역버스 임시 운행

### 주민들의 KTX 이용 편리·교통 불편 해소 기대

### 1일 21회 운행...목포역~터미널 구간 요금 무료

신안군에 따르면, 지난 1월 20일 신안군과 목포시가 목포역을 경유하는 신안군 광역버스(1004호, 20004호, 3004호) 운행에 전격 협의하여 목포시 비상 수송기간 종료 시까지 목포 버스터미널~목포역 노선을 오는 2월 1일부터 운행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는 2019년 천사대교(압태~압해) 개통과 함께, 신안~목포 간 대중교통 운행은 당연한 시대적 요구 사항이었지만, 운수업체 협의의 불발로 지금까지 목포 버스터미널까지만 운행해 왔었다.

이에 양 시·군 의 상생발전 저해 및 대교 개통의 의미를 살리지 못하는 이유로 신안에서

목포역까지 버스 연장 운행의 끊임없는 요구가 계속되고 있는 상황에서, 이번 목포시와 협의의 통해 신안군이 목포역까지 광역버스를 운행할 수 있게 되어 주민들의 KTX 이용 편리 및 교통 불편이 해소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군 관계자에 따르면 그동안 목포시 시내버스 운행 중단으로 시민들의 교통 불편이 심한 상황에서 교통 불편 일부 해소는 물론 KTX를 타고 신안군 관광이 편리해져 관광객이 증가할 것으로 보고 있다. 다만 목포역까지의 버스 운행이 한시적 운행(목포시 비상 수송기간 종료 시까지)이라는 점은 아쉬운 해결 과제라고 밝혔다.



신안~목포(버스터미널) 간 광역버스는 신안군 지역 버스로 목포역을 경유하여 버스터미널까지 운행한다. 7대의 광역버스가 1일 21회 운행하며 목포역~터미널 구간 요금은 무료이다. 신안=이택주기자

## 목포시, 제2회 도시재생 차담회...추진방향 공유

목포시가 지난 26일 도시재생 뉴딜사업 지역 내 지역구 시의원, 동장, 도시재생지원센터장 등과 함께 '제2회 도시재생 차담회'를 가졌다.

이번 차담회는 목원동 도시재생 선도사업, 1897 개항문화거리, 서산동 보리마당, 죽교동 도시재생 예비사업, 유달동 대남마을·죽교동 샘골마을 새뜰마을사업이 진행되고 있는 지역 구 시·도 의원, 도시재생지원센터장, 목원·만호·유달·죽교동장 등이 참석했다.

참석자들은 사업 현장 인근 주민의 의견을 수렴하는 한편, 도시 재생사업 추진 방향과 향후 일정 등을 공유했다.

도시재생사업 추진상황 등을 확인하고 소통하는 차담회는 지난해 12월부터 운영되고 있다.

시 관계자는 "도시재생사업은 단기의 가시적인 성과보다는 지속가능성과 지역 활력의 재생이 중요한 사업으로 지역 주민과 소통하고 함께하는 노력이 필요하다"면서 "앞으로도 행정과 중간 지원조직인 도시재생지원센터, 지역 구 시·도 의원, 주민 간의 소통을 위해 차담회를 지속적으로 운영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목포=기동취재본부



## 영암군, 생활보장위원회 심의회...6건 안건 승인 의결

영암군은 26일 영암군 생활보장위원회 심의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번 심의회에서는 22년 사회복지기금 결산을 비롯하여 23년도 기초수급자 연간조사계획, 자활계획 및 위탁사업 추진계획, 가족관계해체 세대 수급자 보호결정, 기초수급자 수급자 연간 수선계획 및 긴급지원대상자 지원연장 결정 등 총 6건의 안건을 승인 의결했다.

위원회에서는 복지 제도를 확대해 사업에 신청하지 못하는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지속적인 홍보 및 사각지대 발굴을 요청하였으며, 정기·수시 확인조사를 통해 수급이 중지되더라도 차상위계층 및 긴급지원 등과의 연계를 통해 신속하고 적극적인 군민 보호가 이뤄질 수 있도록 각별히 노력해줄 것을 당부했다.

이에 군에서는 "계층별 생애맞춤형 생산적 복지시스템을 체계적으로 구축하여 모든 군민들이 건강하고 편안한 삶을 누릴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며, "취약계층뿐만 아니라 군의 복지사각지대를 최소화하여 촘촘하고 따뜻한 복지를 만들어 가겠다"는 의지를 밝혔다.

영암=조대호 기자

## 영광군 2023 건설공사 종합추진 기획단 출범

### 분야별 10개반·본청 기술직 공무원 48명과 읍·면 12명 등 60명으로 편성

별 10개반, 본청 기술직 공무원 48명과 읍·면 12명 등 60명으로 편성하여 운영할 계획이며, 총 426건(22,296백만 원)의 건설공사에 대하여 측량과 설계, 과업지시서 및 설계도서 검토 등 2023년 건설공사 조기 발주로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하여 1월 26일부터 3월 31일까지 집중 운영에 들어간다고 밝혔다.

여전히 코로나19로 인하여 기획단 운영에 많은 어려움이 있지만, 반별로 선후배 공무원이 한 팀을 이뤄 132건의 사업을 측량 및 설계 등 자체 설계를 함으로써 기술업주의

노하우와 기술을 습득하는 장을 마련하고, 정보공유는 물론 실무능력 배양에도 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군 관계자는 "기획단 운영을 통해 설계된 모든 사업을 조기 발주함으로써 코로나19로 침체된 건설경기 활성화로 지역경제에 불씨를 지피는 원동력이 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신속한 예산집행으로 국가정책에도 부응해 나가겠다. 아울러 신속한 사업추진으로 군민 불편 해소 등 편의도모에 적극 노력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영광=서희권 기자



지난 26일 영광군은 군청 소회의실에서 건설공사 종합추진 기획단(이하 '기획단')의 본격적인 운영을 위한 출범식을 가졌다. 기획단은 건설과장을 단장으로 하고 분야

## 함평군, 고향사랑기부금 답례품 1위 '함평천지한우'

고향사랑기부제가 지난 1일 본격 시행된 가운데, 전남 함평군 기부자들이 답례품으로 '함평천지한우'를 가장 선호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앞서 군은 지난해 답례품으로 친환경쌀, 잡곡, 함평천지한우, 함평사랑상품권, 자동차극장 예매권 등 40개 품목 93종을 선정했다.

기부자들이 가장 선호한 답례품으로 함평천지한우가 27%로 1위를 차지했으며, 함평사랑상품권(20%)과 별골세트(18%)가 뒤를 이었다.

기부 지역은 서울·경기 50%, 광주·전남 40%, 기타 10% 순으로 집계 됐다.

함평=김광춘 기자

## 무안군, 생분해성 멀칭 농자재 9,500만원 지원...내달 13일까지 신청

### 생분해성 멀칭 농자재 지원 통한 노동력 절감 효과 기대

무안군이 발농업에서 효과적으로 인건비를 절감할 수 있는 생분해성 멀칭 농자재를 지원한다.

생분해성 멀칭 농자재는 흙이나 물속에 있는 미생물·효소·박테리아 등에 의해 물과 이산화탄소로 분해되는 자연순환 멀칭 농자재를 말하며 필름, 종이, 액상으로 3가지 형태의 제품이 생산되고 있다.

현재 일반비닐멀칭은 수확작업 기계화를 어렵게 하고 폐비닐 수거를 위한 노동력과 처리

비용이 소요되며 토양 및 환경오염 등의 문제를 안고 있는 반면, 생분해성 멀칭 농자재를 사용할 경우 비닐멀칭의 효과와 더불어 작기 동안 토양에서 생분해되어 노동력을 절감하고 환경오염 문제를 해결할 수 있어 농업인들의 선호도가 높아지고 있다.

사업대상은 마늘·양파 등 노지에서 작물을 재배하는 농업인, 농업법인으로 농가별 최대 2ha 한도로 지원을 받을 수 있으며 해당 읍·면 사무소 산업팀에 2월 13일까지 사업 신청서를

제출하면 된다.

보조사업으로 구입할 수 있는 제품은 녹색 제품정보시스템 환경표지 인증 또는 유기농업자재 인증을 받은 제품이 가능하며 멀칭종이 또는 액상멀칭제의 경우 공인시험 연구기관의 생분해 시험 성적서를 발급받은 제품도 구입이 가능하다.

군 관계자는 "생분해성 멀칭필름 사업 확산을 통해 농촌 일손부족에 대처하고 노동력 절감에 따른 생산비 감소로 우리 군 농업인들의 소득증대에 도움이 되도록 지속적으로 지원할 계획이다"고 말했다.

무안=이기성 기자

**아세요?**  
한수원이 요즘 바쁜 이유

온실가스를 없애고  
미세먼지는 줄이고  
기후변화까지 막는  
지구를 살리는 바른 에너지를  
세계 곳곳에서 만들고 있거든요

**한수원은 지금  
바른 에너지 개발로 열일 중**

**한국수력원자력주**